

학술발표 1

국가지도자와 독서
- 중국 국가주석 毛澤東의 경우

허권수(경상대학교 도서관장)

제57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국가지도자에게 미치는 독서(讀書)의 힘

- 중국 국가주석 모택동(毛澤東)의 경우 -

허권수(許捲洙)

I. 도언(導言)

96473.

30.

첫 번째 숫자는, 모택동의 장서 권수다.

두 번째 숫자는, 『모택동장서목록』 권수다.

동서고금의 세계 역사상 국가지도자로서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가장 독서를 좋아하였다. 숨을 거두기 10시간 전,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마지막 날도 11회에 걸쳐 2시간 50분 동안 독서를 했다.

그리고 도서관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도서관에 관심을 쏟았고, 도서관을 가장 잘 활용한 국가지도자도 모택동이다. 북경대학 도서관 현액(懸額)도 모택동이 썼다[새로 지은 도서관의 현액은 鄧小平 글씨].

모택동이 어떻게 독서를 좋아했으며, 그의 독특한 독서방법은 무엇이며, 독서에 얽힌 그의 독특한 면모는 어떠했던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모택동 독서 학습 과정

모택동은 중국공산당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혁명가, 전략가, 군사이론가로서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자이자 지도자이다. 동시에 그는 문학자, 철학자, 사상가, 교육자, 문인, 시인, 서예가라고도 할 수 있다.

1893년 12월 26일 중국 호남성(湖南省) 상담현(湘潭縣) 소산(韶山)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집안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었으나, 그의 부친은 그가 글 공부하는 것은 싫어하고 오로지 자기를 도와 집안 살림을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에게 주산과 부기를 배울 것을 강요하였다.

1902년 9세 되던 해 봄에 마을의 글방에 들어가서 『삼자경(三字經)』을 배웠다. 이어서 유학경림(幼學瓊林)』과 유교경전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을 차례로 배웠다. 모택동은 기억력이 좋아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였다.

1904년부터 1906년까지 11세 때 소산(韶山)의 글방 등 몇 군데 글방을 옮겨 가며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공부하였다. 서예도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택동은 유교 경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삼국지(三國志)』, 『수호지(水滸誌)』 같은 중국 고대소설을 읽기 좋아했다. 특히 통치계급의 압박에 투쟁하는 내용을 좋아했다. 소설의 주인공이 전부 영웅, 장수, 관리, 선비 등 지배층이고, 농민은 주인공이 되지 못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농민의 아들인 자기가 소설의 주인공처럼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서당 공부를 그만두고 집에서 농사를 거들면서도 계속 책을 읽었다.

이 기간에 『성세위언(盛世危言)』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이 책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또 『교빈려항의(校邠廬抗議)』라는 책을 읽고는 중국의 부패상과 서양 열강의 중국침략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모택동은 이런 책을 보고는 시야가 넓어졌고, 애국적 사상이 싹텄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생겼다.

1909년 16세 되던 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서당에 들어갔다. 이 때 소산에 외지에서 온 이수청(李漱淸)이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외국 각지에 대한 견문과 유신(維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당(祠堂)을 허물고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택동은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여 사제관계를 맺었다.

1910년부터는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 중국 역사서를 읽었다. 때때로 시론(時論)에 관계된 신간 서적을 읽었다.

가을에 동산고등소학당(東山高等小學堂)에 들어가 학습하였다. 고향을 떠날 때 한시를 한 수 지어 부친에게 주었다.

남아가 뜻을 세워 고향을 나섰으면,
학문으로 이름을 이루지 못 하고는 맹세코 돌아오지 않으리.
어찌 꼭 조상들 살던 고향 땅에다 뼈를 묻어야 하나?
사람 사는 어느 곳인들 푸른 산이 아닌 곳이 없다네.
男兒立志出鄉關. 學不成名誓不還.
埋骨何須桑梓地, 人生無處不青山.

이 시에서 모택동은 학업에 정신을 다 쏟겠다는 뜻과 천하 사방에 뜻을 두겠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동산학교에는 유교 경전 이외에도 자연과학과 그 밖에 새로운 학과가 개설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어떤 교사는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과 열강의 중국 침략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다.

동산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모택동은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글을 지어 국문 교사와 교장의 칭찬을 들었다.

이 때 모택동은 유교 경전에 뜻이 있지 않았다. 늘 학교 장서루(藏書樓 : 현재의 도서관)에 가서 중국과 외국의 역사 지리에 관한 책을 빌려 읽었다. 중국 고대의 요순(堯舜), 진시황(秦始皇), 한무제(漢武帝) 등에게 관심이 많았다. 『세계영걸전(世界英雄傳)』이라는 책을 읽고는 나폴레옹, 카테리나, 피터대제, 워싱턴, 루소, 몽테스큐, 링컨 등의 사적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중국에도 이런 인물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응당 부국강병을 도리를 알아야 한다. 고염무(顧炎武)가 ‘나라의 흥망에는 필부도 책임이 있다.[天下興亡, 匹夫有責.]’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동산학교에 있는 동안 양계초(梁啓超)가 주편한 『신민총보(新民叢報)』를 얻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읽었다. 입헌국가(立憲國家)와 전제군주국가의 체제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서양의 국가제도에 대해서 알았다.

1911년 18세 되던 해 봄에, 상향주성중학(湘鄉駐省中學)에 들어가 공부했다. 여기서 손문(孫文)이 주도하는 동맹회(同盟會)에서 발간한 『민립보(民立報)』를 읽고서, 손문이라는 인물과 동맹회의 강령을 알았다. 동맹회에서 중국 곳곳에서 청나라에 저항하는 무장시위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손문 등을 지지하고 청(淸) 왕조에 반대하는 글을 써서 학교 벽에 붙였다.

청 왕조에 반대하는 시위에 최초로 참석하고, 자기의 변발을 맨 먼저 잘랐다.

10월 10일 무창(武昌)에서 의거가 일어나고, 22일에는 장사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 달 말에는 모택동은 장사(長沙)에 주둔하던 부대에 들어가 군인이 되었다. 이 때 상한신문(湘漢新聞)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社會主義)’란 말을 보았는데, 사회주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1912년 1월 1일, 손문이 남경(南京)에서 임시 대총통(大總統)에 취임하여, 중화민국의 성립을 선포했다.

2월 12일에는 청(淸)나라 황제가 퇴위를 선포했다. 3월 10일, 원세개(袁世凱)가 북경(北京)에서 임시 대총통에 취임했다.

혁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모택동은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계속하였다. 여러 가지로 진로를 고려하다가 호남성립제일중학(湖南省立第一中學)에 1등으로 합격하였다.

6월 『상양사목입신론(商鞅徙木立信論)』이라는 글을 지어 ‘위대한 그릇’이라는 국어 교사의 극찬을 받았다. 이 글은 모택동의 최초의 정치적 논문으로, 국가의 통치에는 백성들의 신뢰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글로서, 법학사상과 철학사상이 들어 있었다.

모택동이 역사와 문학을 좋아한다는 것을 안 국어 교사는 모택동에게 『어비역대통감집람(御批歷代通鑑輯覽)』이라는 책을 빌려 주었다.

학교의 교과과정에 한계를 느낀 모택동은 『통감집람』을 읽은 뒤,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는 독학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학교에서 자퇴하고 상향회관(湘鄉會館)에서 기거하며 공부했다. 자신이 「독학계획서」를 만들어, 매일 호남성립도서관(湖南省立圖書館)에 가서 공부했다. 독학하기 시작한 그 해 반년 동안은, 18, 19세기 유럽 학자들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관한 책을 보았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루소의 『민약론』, 스튜어트 밀의 『논리학』, 헉슬리의 『천연론(天演論)』, 다윈의 『종의 기원』 등을 읽었다. 또 미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 등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책, 그리스 로마의 문예작품들도 두루 읽었다. 이 도서관에서 한 장으로 된 ‘세계대지도’를 처음으로 보고 매우 큰 관심을 보이며, 자세하게 보기를 반복했다.

1913년 20세 되던 해 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서, 교직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겠다고 생각했다. 독학을 반대하던 부친이 이 때 마침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그래서 학비도 받지 않고 숙식비도 싼 사범학교로 가기로 결정하여 호남성립제사사범학교(湖南省立第四師範學校 : 나중에 제일사범과 합병) 예과(豫科)

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19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모택동이 수업 들은 것을 기록한 『강당록(講堂錄)』(2백자 원고지 150매 분량)이 남아 있다. 주된 내용은 국어와 수신(修身) 수업의 기록이고, 그 밖에 철학, 역사, 지리, 옛날 시나 문장, 수학 물리 등에 관한 기록도 들어 있다. 또 고금의 명인들의 학문 연구 방법, 처세방법, 국가 통치와 관계되는 윤리도덕에 관한 언행 등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고사성어, 경구(警句) 등도 모두 분류되어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다. ‘특출한 이상’, ‘실적적인 것을 찾아 학문을 좋아하자[求實好學]’, ‘헛이름에 힘쓰지 말자[不務虛名]’ 등의 구절도 있다.

이 때 정성을 들인 해서(楷書)로 굴원(屈原)이 지은 「이소(離騷)」와 「구가(九歌)」를 정사(淨寫)하였다. 그리고는 「이소」의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어 요점을 적고, 매 페이지 상단에 자신의 감상과 비평하는 글을 적어 넣었다.

당시 국어교사 원중겸(袁仲謙)은 모택동의 신문기자 투의 문장을 싫어하여, “양계초(梁啓超) 식의 문장을 배우지 말고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문장을 배우라고 하였으므로, 모택동은 당송팔대가의 선구자인 한유(韓愈)의 문집인 『창려집(昌黎集)』을 사서 정밀하게 연구하여 고문(古文)의 문체를 배웠다.

1914년 21세 되던 해 가을에 본과에 편입하였다. 호남제일사범학교 교사 가운데서 모택동에게 가장 영향을 준 교사는 양창제(楊昌濟)였다. 양창제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교육학과 윤리학 등의 과목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을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다. 양창제는 나중에 북경대학 철학과 교수가 되고, 그의 사후 모택동은 그의 딸 양개혜(楊開慧)와 결혼했다. 재학 중 모택동은 양창제에게 책도 빌리고 학문이나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제일사범학교의 교과목은 아주 다양했다. 그 가운데서 모택동은, 철학, 역사, 지리, 문학 등에 전념하였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독학을 중시하여 자신의 독학계획서를 만들어 계획에 의거하여 쉬지 않고 책을 읽었다. 그는 배운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 녹여 꿰뚫어 확실하게 통하려고 노력했다.

1915년 22세 때 이후로 계속 사범학교 교사 여금희(黎錦熙)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함께 독서, 학업, 중국문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했다. 여금희는 나중에 북경사범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모택동을 도와 한자의 간체자(簡

體字 : 중국식 略字) 제정을 주도하였다.

이 시기에 모택동은 자신의 학문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학문하는 방법을 정했는데, ‘먼저 넓게 보고 나서 요약하며[先博而後約], 먼저 중국 것을 보고 난 뒤 서양 것을 보고[先中而後西], 먼저 보편적인 것을 보고 난 뒤 전문적인 것을 본다[先普遍而後專門]”, “옛날에 나는 독립적인 길을 좋아했는데, 지금 그 것이 잘못된 줄을 알겠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에게 점수를 주어 장려하는 허영은 더욱 비루하게 여겨 버릴 바이다”. 독학의 문제점과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다 지적했다.

1918년 25세 때, 장사에서 친구들과 함께新民학회(新民學會)를 창립했는데, 학회의 취지는, “학술을 혁신하고, 품행을 갈고 닦으며 인심과 풍속을 개량한다”는 것이었다. 학회는 모택동이 주관했다.

6월에 호남제일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新民학회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 때 호남사범 은사 양창제(楊昌濟 : 후일 모택동의 장인)가 북경대학(北京大學) 교수로 옮겼으므로 모택동이 북경대학 입학 을 도모했다. 북경에 머무르며 북경대학 입학 을 도모했는데, 북경대학 교장 채원배(蔡元培)는 ‘불란서 근공검학(勤工儉學)’을 권유했다. 이 때 양창제의 집에 기거하면서 많은 것을 묻고 토론하였다.

1919년 북경대학 철학연구회가 성립되었는데, 모택동도 거기에 참가했다. 아울러 북경대학의 강의를 청강하였다.

은사 여금희가 그가 만든 「국어연구조사진행계획서」 개정본을 모택동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구했다.

3월 모친의 병으로 호남(湖南)으로 돌아와新民학회의 일을 다시 주관했다. 장사(長沙)의 소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며, 각계의 인사들과 접촉했다.

5月4日 북경에서 5.4운동이 일어났는데, 모택동은新民학회 회원과 함께 북경의 인사들과 연계를 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북경의 학생들과 보조를 같이하기로 했다. 새로운 호남학생연합회를 창립하여 반제국주의 애국운동을 주도하였다.

1920년 1월 17일 은사 양창제가 북경에서 병사했다. 모택동은 북경으로 가서, 두 딸과 함께 빈소를 지켰다. 두 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중에 모택동과 결혼한 양개혜(楊開慧)이다. 북경대학 교장 채원배, 은사 여금희 등과 함께 양창제의 서거를 알리는 부고를 내었다.

이 때부터 마르크스주의이론과 러시아 혁명 역사에 관한 책을 읽어 그 영향을 받았

다. 이로 인해서 중국어로 된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을 열심히 수집하였다. 특별히 감명을 받은 세 가지 책은,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카우츠키의 『계급투쟁』, 카프의 『사회주의사(社會主義史)』였다. 이 때부터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

4월 11일 북경을 떠나 상해로 가면서, 곡부(曲阜)에 들러 공자가 살던 집, 묘지를 둘러보고 맹자의 출생지를 둘러보고 태산(泰山)에 올랐다.

5월 상해에 머물면서 신민학회 회원들과 신민학회 문제를 토론했다. 친구들과 공동으로 일하며 공동으로 독서했다.

6월 7일 은사 여금희(黎錦熙)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돌아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저는 일생 동안 학교를 아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에는 진학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자유롭게 연구하려면 규율과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문에 있어서, 아직도 한 가지만 전공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복사선(輻射線) 방법을 사용해서, 한 분야 한 분야씩 섭렵해 볼까 합니다. 상식적인 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전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식이 모여져 일관되게 정리하면 깊은 경지에 쉽게 이를 것입니다. 스펜서는 국가가 구속하는 것을 가장 원망했습니다. 저는 학교가 구속하는 것은 큰 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학, 언어학, 불교학을 저는 아주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상해에 있으면서 북경대학 문과대학장을 지낸 진독수(陳獨秀)와 자기가 읽었던 마르크스주의 서적에 대해서 토론했다. 이 때 진독수는 공산당을 조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택동은 뒷날 “내 일생에서 가장 관건적(關鍵的)인 시기로, 나에게 심각한 인상을 주었다”라고 회고했다.

장사(長沙)로 돌아가서 7월 31일, 문화서사(文化書社)를 만들고 그 발기문을 지어 『대공보(大公報)』에 실었다. “현재 전중국과 전세계에는 새로운 문화가 없다. 단지 새로운 문화의 한 가지가 북쪽 얼음 언 러시아의 해안에만 있다. 새로운 문화가 없는 것은 새로운 사상이 없기 때문이고, 새로운 사상이 없는 것은 새로운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연구가 없는 것은 새로운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호남 사람들의 정신적인 굶주림은 배의 굶주림보다 더 심하다. 청년들은 흥년을 만나 울며 먹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서사(文化書社)는 가장 신속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내외의 각종 최신 서적, 신문, 잡지를 소개하여, 청년 및 전체 호남 사람들의 새로운 연구자료를 보급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가 생산되기를 우리들은

희망하여 마지 않는다”.

8월 2일에 문화서사(文化書社)의 창립총회를 열었다. 모택동은 「문화서사 조직대강」을 기초했는데, 그 가운데, “본사는 내외의 가치 있는 각종 서적 신문 잡지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한다”, “가치 있는 새로운 각종 출판물을 호남성 전역에 널리 보급하여 사람마다 열람할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 해 8월에 상해에서 중국공산당이 정식으로 성립됐다.

10월 전에 양창제(楊昌濟)를 통해서 북경대학 도서관 주임 이대교(李大釗)를 알고 있었으므로, 도서관 조리원(助理員)이 되어 신문 잡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자주 철학교수이자 중국 최초의 공산당 이론가인 이대교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그와 함께 마르크스 관계의 서적을 읽었고, 이대교가 조직한 학생토론회에 참여하였다. 북경에 있는 신민학회(新民學會) 회원들과 함께 북경대학 교장 채원배(蔡元培)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철학교수 호적(胡適) 등을 초청해서 대담을 했다.

1921년 8월 호남자수대학(湖南自修大學 : 일종의 獨學士 제도)를 창립하여 모택동 자신이 지도주임을 맡아 실질적인 책임을 졌다. 자수대학의 취지는 이러했다. “본대학은, 현재의 교육제도의 결함을 보고서, 옛날 서원과 현대 학교의 장점을 취하여, 학생이 자발적인 방법으로 각 분야 학술을 연구하여, 진리를 발견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를 백성들에게 보급하고, 학술을 사회에 두루 퍼져나가게 하려고 한다.”

자수대학은 국내외 각 주요 대학과 학술단체 등에 통신원을 두어 학술교류를 하도록 했다. 자수대학의 연구 범위는 과학, 철학, 문학 세 분야로 했다. 또 “본대학의 학우들은 문약(文弱)한 습관을 없애고, 두뇌와 체력을 고루 발전시키고, 지식과 노력(勞力) 두 부분의 접근을 위하여 노동에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조항도 있었다.

「호남자수대학 창립선언」에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학교는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교수법과 관리법으로 인성을 해치고, 교과과정이 지나치게 번다하다. 학생이 종일토록 수업에 과묵히 사니, 학생들이 수업 밖에는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을 써서 자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다. 자수대학 학습 내용과 방법은, 주로 ‘자기가 책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공동으로 토론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뒤, 교사의 지도를 받아 보완하는 식이다.

이 해 초가을 호남제일사범학교의 국문 교사로 초빙되었다.

1925년 공산당 지하활동을 한 이후에 계속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매우 어렵고 국민당에게 쫓기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홍군대학(紅軍大學), 항일군정대학(抗日軍政大學), 공산당중앙당교(共產黨中央黨校), 노신예술대학(魯迅藝術大學) 등 교육기관을 만들어 교육을 계속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자신이 직접 강의를 하기도 했다.

1949년부터 197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매일 밤새워 책을 읽었다. 문학 철학 사상 등에 대해서 교수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한 예로 소련 총서기 후르쉴초프에게 “내가 철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으니까 주중국 소련대사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을 보내면, 좋겠소”라고 하였다.

그는 공산당 주석이나 국가 주석으로서, 개인 편지나 산문 시 작품은 물론이고, 공산당 주석, 국가 주석 명의로 나가는 모든 담화문, 외교문서 등을 직접 자신이 다 지었고, 모필로 친필로 써서 보냈다.

II. 모택동에게 있어서 독서

1. 매우 독특한 독서습관

모택동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반대하는 부친의 핍박을 피해 밤에 담요로 창문을 가리고 독서했다. 서당을 쉬고 집에 있을 때 부친이 과도하게 일을 시켰는데, 자기에게 할당된 일을 새벽에 일어나 미리 다 해 놓고 책을 보았다.

그는 “내가 일생 동안 가장 사랑한 것은 독서다”, “밥은 하루 안 먹어도 되고 잠은 하루 안 자도 되지만 책은 하루라도 읽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자신이 책이 보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배고픈 소가 채소 밭에 달려들어가듯이 했다”라고 했다.

그는 시간을 절약하고 아껴서 독서를 했다. 그는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 국가통지 같은 막중한 업무 속에서도 일분 일초를 쪼개어 책을 읽었다. 그가 살던 중남해(中南海)의 고거(故居)는 ‘책(冊) 천지(天地)’다. 그의 집무실의 책상 위, 식탁 위, 다탁 위에는 물론이고, 화장실에도 모두 책이다. 집무실 침실 사방 벽은 모두 책장으로 둘러쳐져 있다.

보통 침대보다 두 배 크기로 맞춘 그의 침대는, 가운데 눕는 자리에만 책이 없고, 사방 3, 40센티 정도의 높이로 몇 겹으로 책이 둘러싸고 있다.

그는 숨을 거두는 날, 숨을 거두기 10시간 전까지도 책을 보았다. 그 날 11차에 걸쳐 2시간 50분 동안 책을 보았다.

보통 밤새도록 독서하다가 아침 9시 경에 취침하여 12시 경에 일어났다. 국가 대사에 있어서도 큰 지침만 내리고, 구체적인 일은 주은래(周恩來) 총리가 다 처리했다. 공산당 회의는 보통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모택동의 수면시간 때문이다.

청년시절에는 길 가다가 가로등 아래에 서서 책을 읽기도 하였다.

장서가 거의 10만권[장서목록에 96473권 등재]인데, 거의 모두가 모택동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골라서 구입한 책이다. 장서 관리하는 일만 전담하는 비서를 두고 책을 관리하게 했다.

한 권 한 권의 책을 지극히 아꼈는데, 대부분의 모택동 장서에는, ‘모씨장서(毛氏藏書)’라는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다.

중국국가도서관 열람증 번호 1번인데, 1949년부터 1976년까지 2천번 정도 대출해서 책을 보았고, 지방 출장 갈 때면, 항주(杭州)의 절강성(浙江省) 도서관, 성도(成都) 사천성(四川省) 도서관 등 각지의 도서관에서도 필요한 책을 대출해서 보았다.

전쟁터에서도 책을 넣어 다니는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자치통감(資治通鑑)』과 『노신전집(魯迅全集)』은 늘 휴대하고 다녔다.

전쟁터에서도 쉬는 시간에는 땅 바닥에 글을 써 가며 부하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책 이야기를 했다. 그는 타고난 교육자라 할 수 있다. 글자도 모르던 병사들이 나중에는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하활동 할 적에 학질에 걸려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출장 갈 때면, 책을 넣어 운반하는 큰 상자가 있는데, 출장 가기 전에 모택동이 휴대할 책 목록을 적어 장서 관리하는 비서에게 주면, 두 개의 상자에 넣어 운반하는 데, 보통 한 번 출장 나갈 적에 200여 종 정도씩 휴대해 갔다.

모택동이 입고 있는 옷은 모두 호주머니가 큰데, 책을 넣고 다니기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만든 것이다.

80세를 넘어 백내장이 와서 수술한 시기에는 북경대학 중문과의 노적(蘆荻)이라는

여교수를 책 읽어주는 비서로 특별 채용하여 자기 머리 밑에서 고전을 읽게 했다.

만년에 체력이 쇠퇴해진 이후에는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누워서 책을 볼 때 착용하기 위해서, 다리가 한 쪽에 하나 밖에 없는 안경을 두 개 맞추어 착용하였다.

한여름에 광주(廣州)에 출장 나가 기온이 40도가 넘는 날이 계속되었다. 모택동은 매일 시찰하고 회의 주재하고 사람 만나고 차 타고 이동하는 등 보통 사람으로서는 벅찬 일이었는데, 70이 넘은 나이에든 계속 임무를 수행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는 계속 책을 보았다. 비서들이 망설이다가 틈을 타 “이 혹서기에 너무 과로를 해서는 위험합니다”라고 간언을 하였다. 그러자 모택동은 “나에게 있어 독서는 곧 휴식이다 [讀書乃休息]”이라고 대답했다. 장편의 어떤 책을 보다가 다른 책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휴식으로 생각했다.

매끼 식사할 때도 비서들이 요리를 두세 번 다시 데워야 했다. 모택동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 부분만 다 보고”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이었다. 공산당 군대가 장개석(蔣介石) 군대를 내쫓고 중국을 완전히 차지하는 날에도 그는 책을 보고 있었다.

그가 자주 사용하던 한문사전 『사해(辭海)』, 『사원(辭源)』 등이 수록된 단어가 적고, 해석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지적하여, 새로운 사전을 만들 것을 지시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것이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한어대자전(漢語大字典)』이다.

고힐강(顧頡剛) 등 원로 역사학자들을 초빙하여 이십오사(二十五史)와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에 구두(句讀)를 띄어 표점(標點)을 찍어 출판한 사업은, 모택동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십오사와 『자치통감』 등을 자신이 읽으면서 명확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고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역사고전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이기 위해서 모택동이 직접 맨 먼저 의견을 내놓았다. 오늘날 중국에서 고전에 표점을 찍어 출판하는 바람이 분 것은 것은 모택동이 끼친 영향이다.

2. 모택동의 독서 방법

1) 학문적으로 옛 사람을 능가하려고 결심하다.

모택동은 그의 『강당록(講堂錄)』에서, “재주가 지금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재주

있다고 할 수 없고, 학문이 옛날 사람보다 못 하다면, 학문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시절부터 우주의 근 근본을 다 탐구하고 천하의 책을 다 읽으려고 뜻을 세웠다. 1920년부터 마르크스의 저작을 읽어 침잠해서 연구하고, 『삼국지』, 『수호지』, 『손자병법』, 각종 중국역사서 등의 사례를 가미하여 중국 실정에 잘 맞게 운영하여 ‘모택동 사상’이라는 이론체계를 만들었다. 모택동 사상은 현실적인 운용면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능가한다고 할 수 있고, 병법의 측면에서 볼 때, 『손자병법』보다 더 수준이 높고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2) 항구적(恒久的)인 독서

모택동은 장사에서 공부할 때, “심신의 수양과 학문의 연구를 위주로 노력하여 독서한다. 항심(恒心)을 갖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이런 대련(對聯)을 지었다. “항심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나니, 어찌 꼭 삼경에 자서 오경에 일어나야만 하겠는가?[貴有恒, 何必三更起五更眠.], 가장 이로움이 없는 것은, 하루 햇볕 쬐이고 열흘 춥게 만드는 것이라.[最無益, 一日曝十日寒.](실제로는 명나라 학자 胡居仁이 대련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 모택동의 항심(恒心)을 강조하는 정신을 강조하였다. 애사기(艾思奇)가 지은 『철학과 생활』이라는 책을 읽고서, 질문으로 뽑아낸 글이 3천여 자나 되었는데, 애사기에게 부쳐 보내어 가르침을 청했다.

자신이 영어가 약하다는 것을 느껴, 1954년 62세 때부터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1972년까지 18년 동안 계속하였다. 1972년 닉슨대통령을 만날 때 통역이 영어 통역하는 것을 고쳐 줄 정도까지 수준을 향상시켰다.

3) 반복해서 독서하다.

평상시 모택동은 좋아하는 책일 경우 읽고 또 읽어 점차적으로 깊이 이해했다. 어떤 책을 한 번 읽었으면, 표지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쳤다. 중남해(中南海)에 보관되어 있는 그의 장서 가운데는 표지에 동그라미가 4개, 5개인 책이 많이 있다. 어떤 책은 페이지 상단에 붉은 색, 남색, 검은 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자신의 감상과 비평, 주석을 붙인 것이 많이 있다. 모택동이 반복해서 읽었다는 흔적이다.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은 17번 읽었고, 이달(李達)의 『사회학대강』은 10번 이상 읽었다. 『홍루몽

《紅樓夢》』 10여 종이 넘는 각종 판본을 다 읽었다. 이십오사를 전부 다 읽고 거기에 자신의 감상, 비평, 주석, 교정 등을 써 넣었다.

4) 관심 범위가 넓고 장서가 다양하다.

그의 독서의 범위는 매우 넓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학, 철학, 역사, 지리, 종교, 사회과학으로부터 자연과학, 서양의 사회과학, 마르크스 엥겔스 등의 저작에 걸쳐 있었다. 모택동은 또 신문과 잡지를 아주 중시했다. 특히 중국고전을 두루 읽었다. 중국 고전시가를 모필로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기를 좋아했다.

5) 계통적으로 연구했다.

모택동은 관심의 범위가 넓어 책을 널리 읽었다. 동시에 진지하게 연구하여 책에 실린 지식을 체계적으로 흡수하였다. 그는 동지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연구 능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의 이론을 연구해야 한다. 만약 우리 당에 영성하지 않고 계통적으로, 공허하지 않고 실제로 마르크스 레닌의 이론을 공부한 동지가 1백 내지 2백 명이 있다면, 우리가 일본제국주의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6) 독서할 때는 반드시 붓을 잡고서 감상이나 비평, 주석을 달았다.

모택동은 독서할 때, 책 페이지에다 자신의 느낌, 비평, 주석, 교정 등을 달았다. 장사 사범학교에 다닐 때, 폴슨의 『윤리학원리』라는 책에 써 넣은 주석이 1만 2천 자에 이르렀다. 그가 본 책에는 반드시 주석이나 비평 각종 부호가 달려 있다. 또 원서에 잘못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고쳐 놓았다. 모택동은 “손에 붓을 잡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은 독서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석할 자세를 갖고 독서를 했다.

7) 학문과 사색의 결합

모택동은 “중국의 학자들은 2천여 년 동안 배우기만 했지 사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 중국의 학자들이 이전의 학문을 답습만 했지, 창작이 없었다는 것을 비판한 말이다. 그는 공자가 말한 ‘배우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學

而不思則罔)]’ 것을 실천했다. 자기가 읽는 책이 형성된 시대적 배경, 특징, 책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책을 지은 사람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다. 역사 책을 읽을 때는 책의 내용을 역사의 사건 위에다 옮겨놓고 읽었다. 자신의 독특한 역사관으로 역사의 흥망의 이치를 살펴, 역대 인물들의 업적과 선악 등을 평가하여 거기서 경험과 교훈을 얻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치 방안을 도출해 내었다. 모택이 비평한 역대 인물, 역대 고전, 역대 시문 등을 모아 낸 책이 출판되어 있다.

남북조시대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장서가 아주 많았는데, 자기 당대에 나라가 망하자, “내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나라를 지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며 책을 원망하였다. 사색을 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독서를 했기 때문이었다.

8) 개방적으로 학문을 추구했다.

모택동은 학문은 현실사회와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글자 있는 책[有字書]’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글자 없는 책[無字書]’도 읽어야 한다고 했다. ‘글자 없는 책’이란, 곧 ‘세상을 보고 관찰하여 배우는 것’이다. 그는 “문을 닫고 공부하면, 그 학문은 쓰일 곳이 없다. 천하의 만물 만사를 다 배우려고 하면, 지구 끝까지 두루 다녀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옛사람의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간다[讀萬卷書, 行萬里路]’라는 말을 아주 칭찬했다.

9) 질문을 중시했다.

모택동은, “학습은 죽은 책을 읽는 것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책을 읽는 것보다”라고 했다. 공자의 ‘모든 일을 묻는다[每事問]’라는 정신을 배워 질문을 좋아하고 잘 하였다. 송나라 문화가 구양수(歐陽脩)는, 학문하는 방법으로 ‘삼다[三多]’를 주장했다. 곧 ‘많이 읽고[多讀]’, ‘많이 생각하고[多思]’, ‘많이 지어 보라[多作]’는 것이다. 모택동은 삼다를 변형시켜 ‘사다(四多)’를 주장했다. ‘많이 물어라[多問]’를 추가했다. 묻는 것은 책에 대한 관심의 절실함으로 책의 내용에 자신이 참여하여 저자와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다.

10) 시간 활용을 잘 했다.

모택동이 말하기를, “공부하는 데는 방법이 해결해 주는데, 그 방법은 시간을 짜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밥 먹는 시간 전후, 휴가, 명절, 여행 도중의 짧은 시간을 잘 활용했다.

풍기용(馮其鏞)이라는 홍루몽(紅樓夢) 연구의 권위자가 북경사범대학에서 『홍루몽』 특강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5, 6명의 학생들에게 『홍루몽』을 읽어 보았느냐고 질문을 하자, 대부분의 학생들의 공통된 답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바빠서 못 읽었습니다”였다. 사실 『삼국지』보다 두 배 정도 길어 다 읽기가 쉽지 않다. 그러자 풍교수는, “여러분들이 바쁘고 시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모택동주석보다 더 바쁘고 시간이 없느냐? 모주석은 『홍루몽』을 10번 읽었다”라고 했다.

11) 싫증내지 않고 계속 배웠다.

모택동이 말하기를, “공부하는 데 가장 큰 적군은 자기 만족이다. 진지하게 공부하려면 자기 만족을 하지 않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자기에게는 ‘배우기를 싫증내지 않아야 하고[學而不厭]’,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 싫증내지 않아야 한다[誨人不倦]’”라고 했다. “숨을 거둘 때까지 공부한다’는 것이 모택동의 신조였고, 실제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책을 보았다.

12) 배운 것을 현실에 잘 적용했다.

모택동은, “학문에 정통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응용하기 위해서다. 이론과 실천은 화살과 과녁의 관계와 같다”라고 했다. 과녁을 맞추지 않는 화살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실천하는 가운데서 배울 것을 강조했다.

청나라 말기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공자진(龔自珍)은, “어떤 시대가 다스려지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학문이 있기 때문이다.[一代之治, 即一代之學]”라고 말했는데, 모택동이 독서하여 실천한 사실이, 바로 이 말을 증명하고 있다. 많은 중국 관료들이 모택동의 지혜와 재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그가 독실하게 독서를 좋아하여, 여러 가지 책을 본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IV. 모택동의 업적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서양 열강에게 계속 패전하여 반식민지 상태에 있던 중국은 1900년대 들어와서는 스스로 ‘동아병부(東亞病夫)’라고 비웃으며 낙담해 있었다. 1937년부터는 북경, 상해, 남경, 무한 등 중국의 대부분은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었고, 장개석(蔣介石) 정부는 중경(重慶)에 피난가 있었다. 중국은 정말 희망이 없었고, 중국 국민들도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이 무조건항복하였고, 중국이 해방되었다. 모두가 장개석 정부가 중국 대륙을 지배할 줄 알았다. 모택동의 공산당보다 병력이 20배 이상 많고, 미국의 막대한 무기 군수 등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도 모두 장개석을 지지하고 있었다.

5년에 걸친 국공내전 끝에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1949년 10월 1일 천안문(天安門) 광장에서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전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런 결과를 가져 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 독서의 힘이다.

모택동은, 중국을 통일시켰다. 외세를 몰아냈다. 일본은 물론이고 서양 열강의 조차지(租借地), 서양 열강이 세운 학교, 교회, 사회단체 등을 다 없애고 중국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되찾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토지를 국유화하고 주택을 배급하여 백성들의 의식주를 최소한 해결하였다.

의료제도와 교육제도를 거의 무상으로 만들었다.

국방 강국으로 만들었다.

지하자원을 새로 탐사하여 개발하였다.

아편 등 중국을 병들게 하는 마약을 완전히 퇴치했다.

도박, 매춘, 고리채 대금 등을 완전히 없앴다.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였다.

지나친 좌경화로 우파인사를 탄압하고,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수천만 명이 굶어죽게 만들고,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수많은 지식인들을 핍박하고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산업을 쇠퇴하게 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공과(功過)를 대비하면 공이 70퍼센트, 과가 30퍼센트 정도 된다고 평가 받고 있다.

V. 결어

명(明)나라를 멸망시키고 대순(大順) 제국을 세운 이자성(李自成)은, 북경 자금성(紫禁城)에서 황제에 즉위하고 “우리는 황소(黃巢)처럼 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황소처럼 행동하다가 며칠 만에 청나라에 나라를 넘겨주고 죽었다. 당나라 황제를 내쫓고 대연(大燕)제국을 세운 황소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다가 민심을 잃어 황제 자리를 놓치고 생명도 잃었다.

모택동은 “우리는 이자성이 되지 말자”라고 했는데, 과연 그 다짐을 실천하여 나라를 세우고 지켜 나갔다. 모택동은 고금의 고전에서 교훈을 얻었던 것이다.

대학을 다닌 적도 없고 외국에도 한번 나가본 적이 없던 모택동이 대륙을 통일한 것은, 오로지 독서한 덕분이다.

독서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독서가 모택동을 만들었고,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20014년 9월 25일]